

용의 왕



풍산초 3학년 강윤성

[소개의 글]

안녕하세요. 그림책 작가 강윤성입니다.

초3인데 이렇게 그림책을 그렸습니다.

이 그림책을 그리게 된 것은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이기도 하고

그림책을 그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

그리고 큐브스토리라는 주사위를 굴러가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.

이 그림책은 유전자가 점점 진화하고 진화해서

용에서 드래곤으로 변신하는 이야기입니다.

이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

이 이야기에 나오는 용처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

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

| 지은이 | 강윤성

| 펴낸곳 | 풍산초등학교

| 발행일 | 2020년 10월 28일

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 강윤성과 풍산초등학교에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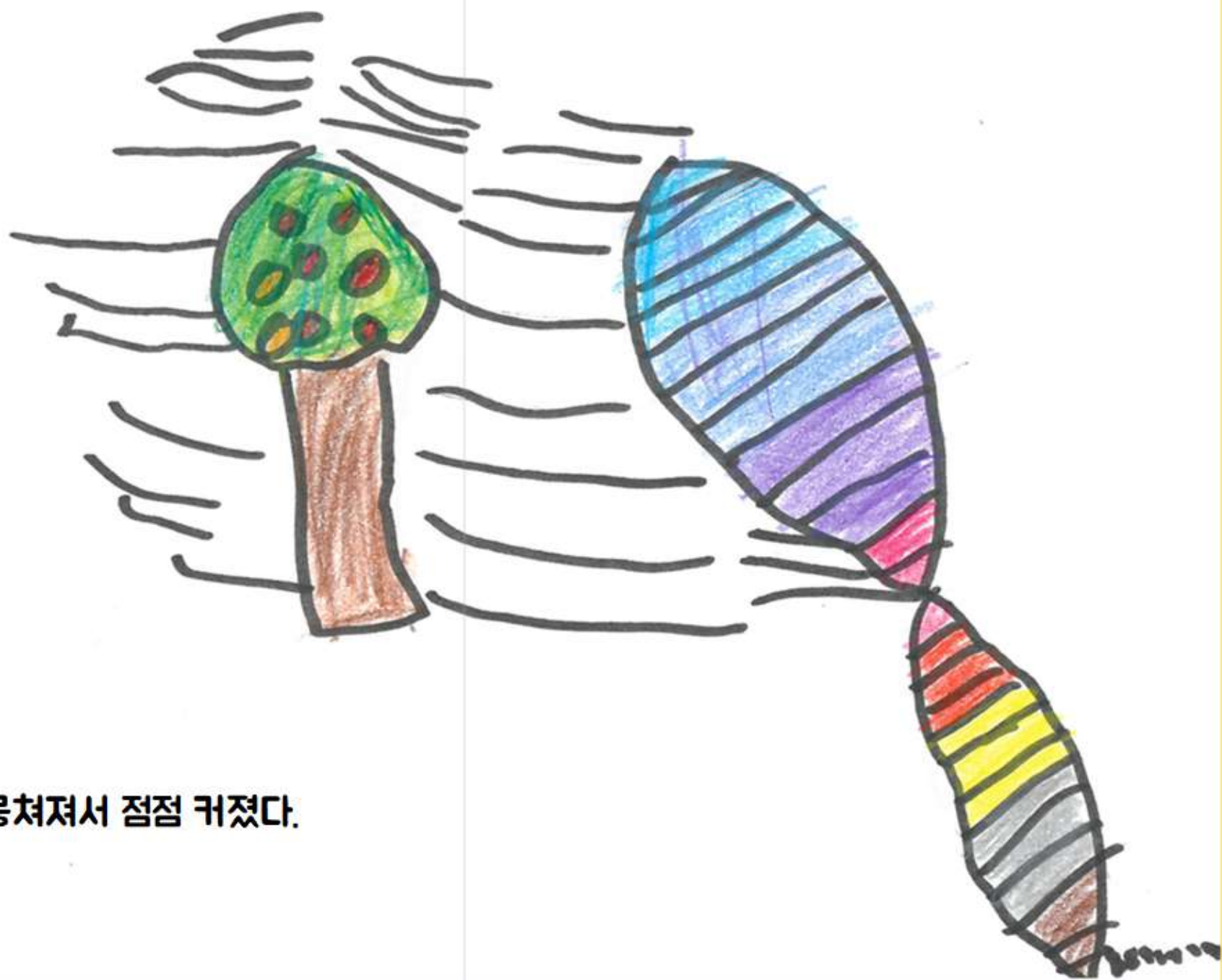
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.

용의 왕





유전자가 있었다.



유전자는 뭉쳐져서 점점 커졌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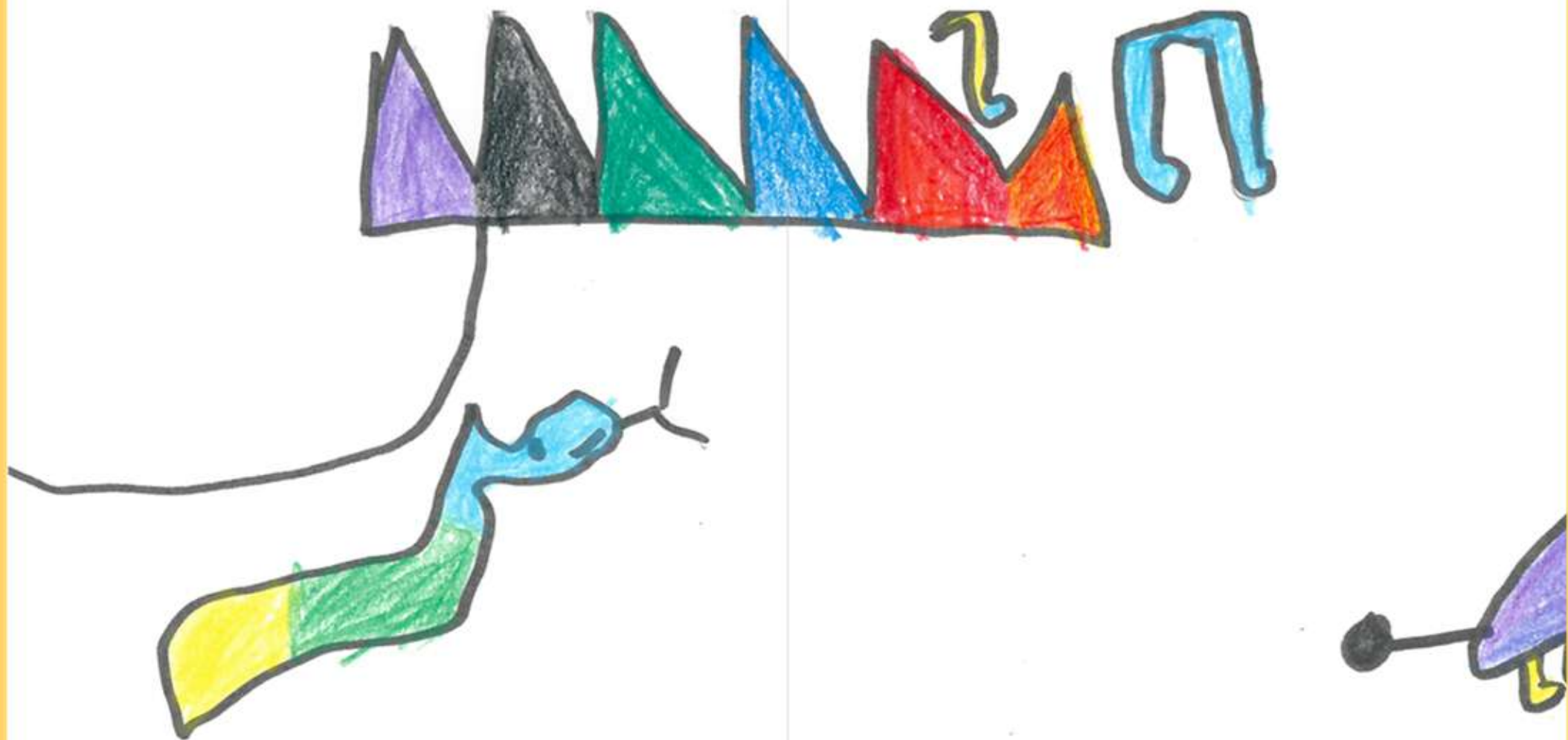
계속 커지다가 마침내 알이 되었다.



그리고 하루 뒤에 부활했다.
그때 어디선가 쥐가 나타났다.
쥐는 용을 약올렸다.




'넌 나보다 약해.
그래서 내가 널 삼킬거야'




그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.


뭐지? 하고 자세히 보니
그것은 용으로 변하는 약이었다.



용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약을 먹었다.
그래서 용이 되었다.
하지만 아직 날 수는 없었다.




쥐가 말했다.
'나무를 50개 갇아먹으면
날 수 있지'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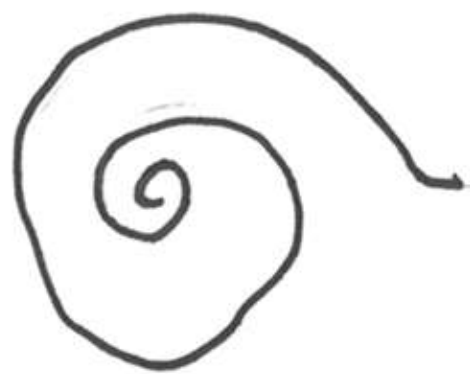
쥐에게 물었다.
'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?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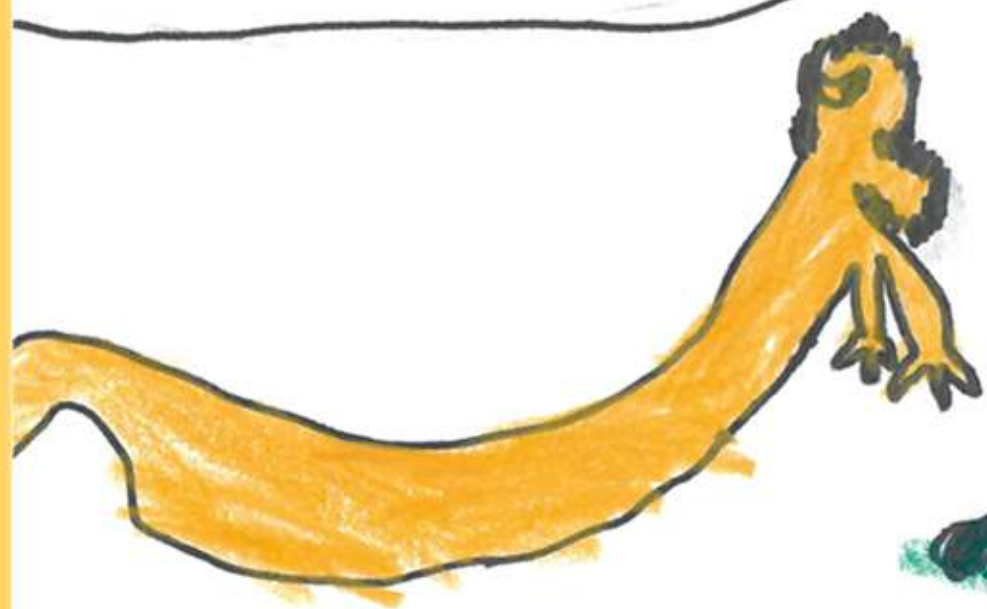


그래서 힘들게 50개를 갇아먹었다.
하지만 그래도 날 수가 없어서
쥐한테 화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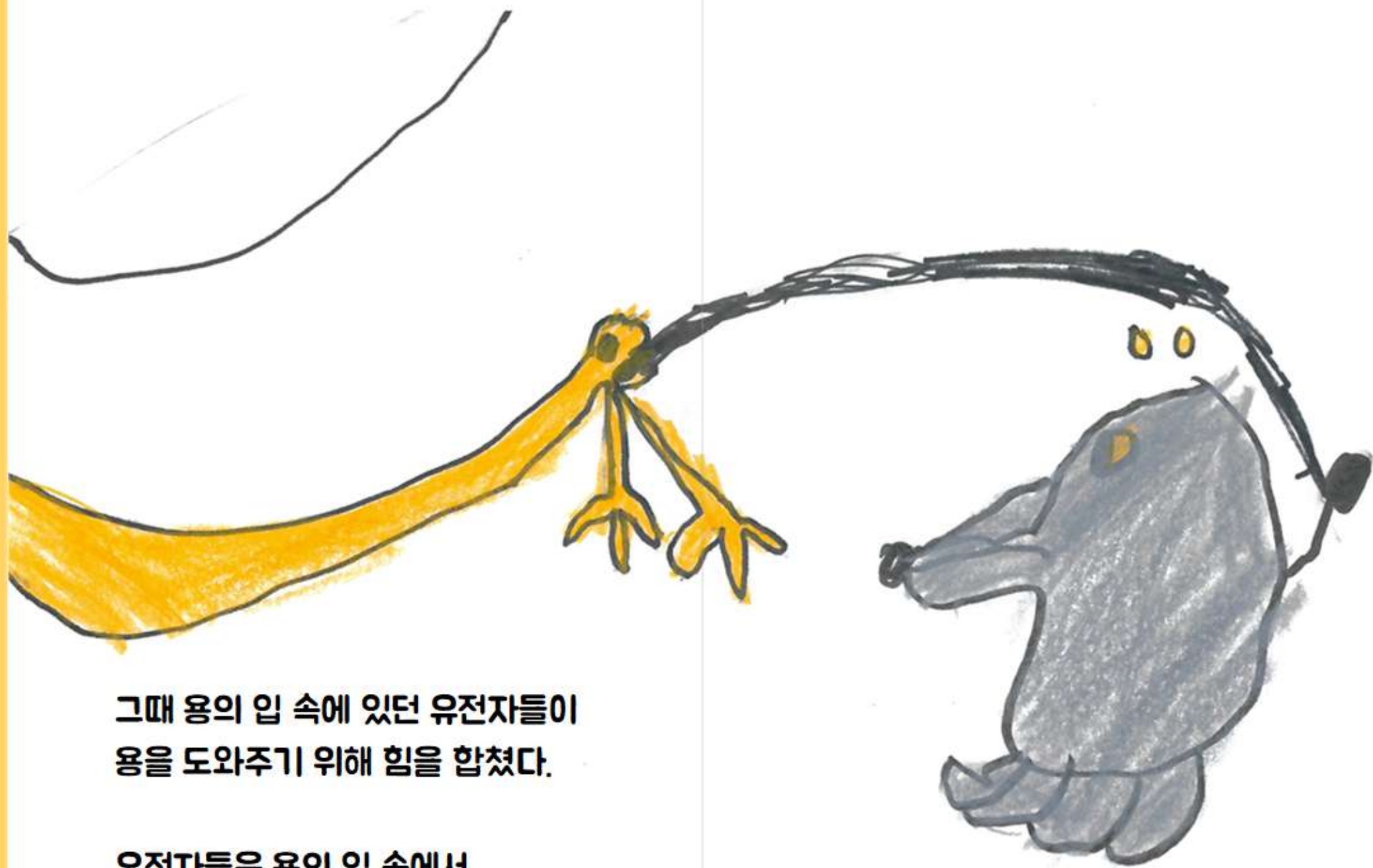
이번엔 딱딱한 바위를 먹어보았다.
그랬더니 날 수 있는 용이 되었다.





이제 용은 자신을 속인
쥐에게 복수하기로 했다.
쥐를 만났는데 쥐가 몸집이 더 커져 있었다.





그때 용의 입 속에 있던 유전자들이
용을 도와주기 위해 힘을 합쳤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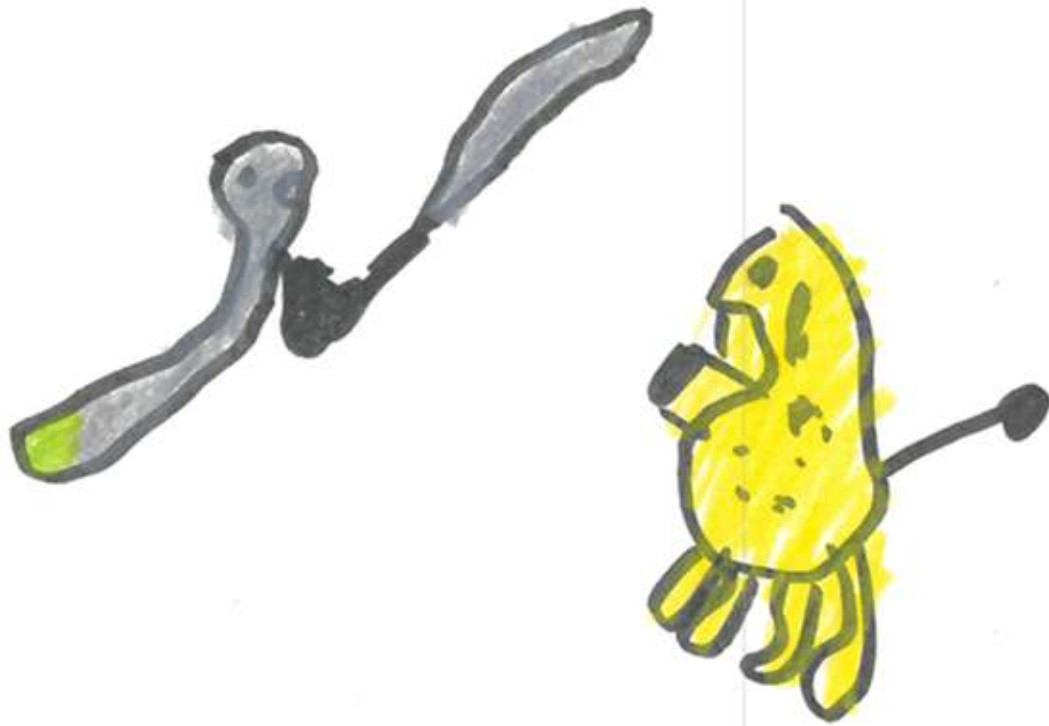
유전자들은 용의 입 속에서
빛을 쏘아서 쥐를 죽였다.

빛과 함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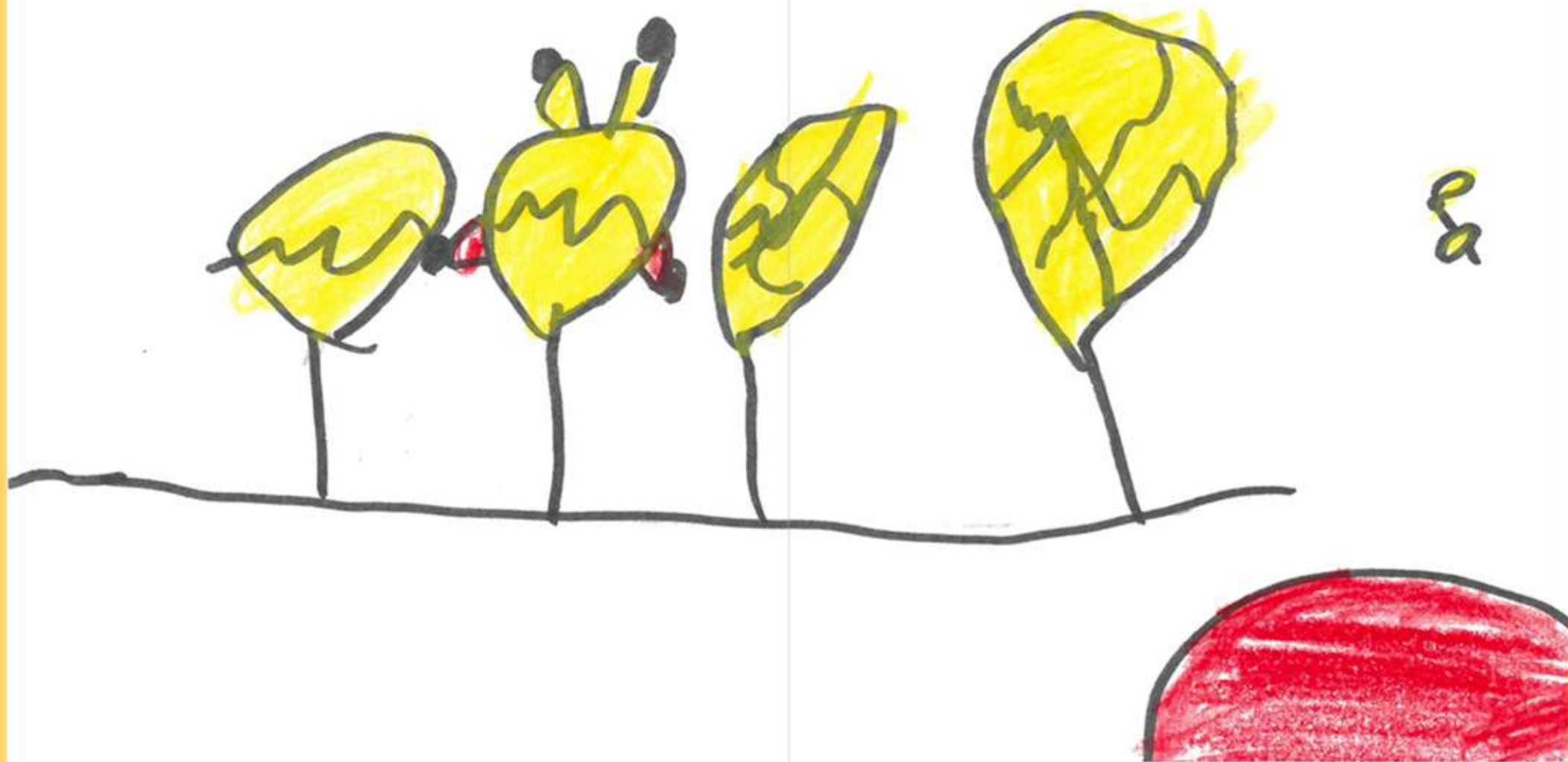
용의 몸 밖으로 나온 유전자들 때문에

용은 다시 몸집이 작아졌다.

유전자들은 아직 살아있는 쥐를 먹어치웠다.



그랬더니 유전자가 알이 되었다.



그리고 알에서 용이 깨어났다.
이게 계속 반복해서
온 세상이 용천지가 되었다.

